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3.17(금) ~ 2023.03.23(목)

제공일시 2023 03 3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3.17(금) ~ 2023.03.23(목)

제공일시 2023 03 3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정부 2030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 기업 수요 고려해 최소 33%로 높여야”

-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는 기후환경단체 플랜1.5와 공동으로 ‘2030년 국내 재생에너지 수요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2030년까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충족하기 위해 최소 11.4% 이상 보급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는 분석을 했음
-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2030년 재생에너지 수요는 최대 172.3TWh(테라와트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음
- 정부가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망치는 136.1TWh임 기업에서 필요한 수준의 약 56% 정도에 불과함
- 이에 대해 CoREi는 기업의 PPA 확대를 위한 장애 요소를 개편하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 순위 정책 과제로 꼽았음

(한스경제, 2023.03.20) 박수연 기자

2. “탄소중립 목표, 15년 당기기에 동의?”…주민투표로 물어서 결정한다는 베를린

- 독일 베를린은 시의 탄소중립 목표 시점을 현행 2045년에서 2030년으로 조정하려는 계획에 동의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했음
- 연방정부의 목표 시점은 2045년인데, 베를린이라도 15년 앞당기자는 취지에 대한 투표로, 기후 위기 관련 법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건 처음임
- 이번 투표를 주도한 건 ‘기후 새로운 시작 이니셔티브’(이하 이니셔티브)로, 투표는 이니셔티브가 마련 한 개정안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짐
- 투표를 진행하는 이니셔티브는 기후 목표 상향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반면, ‘7년 내 탄소중립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음

(한국일보, 2023.03.20) 신은별 기자

3. 유럽연합 ‘그린워싱’ 광고 막는다, 기준 단일화한 친환경 표시지침 도입

- 유럽연합(EU)이 식품을 비롯한 제품 광고에 활용되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표시 기준을 일원화하는 새 규제를 도입함
- 이번 규제는 수많은 기업에서 출시되는 제품이 뚜렷한 검증 기준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들에 친환경 제품으로 인식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표시지침(Green Claim Directive)을 공개하고,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함
- 특정 상품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표시하려면 유럽연합에서 도입하는 단일 인증제도를 통해 입증을 거쳐야 하며,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규정 이행을 감독함

(비즈니스포스트, 2023.03.21) 이근호 기자

1. RE100 주도 영국 전문가 “한국정부 계획으로 RE100 달성 불가능”

- ‘RE100’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영국의 클라이밋그룹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추진 중인 한국 정부에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과 투자환경 개선 등을 당부했음
- 클라이밋 그룹은 현재 한국 정부 계획으로는 어떤 기업도 RE100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함
- 이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전력시장 제도 및 정책 환경 마련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기업의 전력구매계약 활성화 장애물 제거 ▲전력망 운영의 유연성·공공성 강화 ▲재생에너지 투자 환경 개선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서의 투명성·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제시했음
- 올리버 윌슨 RE100 대표는 “기업이 전력을 구매할 때 계약상 부당한 의무사항을 없애고 재생에너지 생산간 인허가 규제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2023.03.17) 황덕현 기자

2. “10년을 기다렸다”...中 규제에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 급성장

- 중국의 친환경 규제에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이 빠르게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음
- 10여년 전부터 관련 소재를 개발했지만 상용화가 안돼 전전공공했던 LG화학과 SK케미칼 등 국내 석유 화학 업체들이 이번 중국 특수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됨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중국의 생분해 플라스틱 소비량은 2016년 15만1000톤에서 2021년 27만6000톤으로 늘었으며, 중국 정부의 플라스틱 사용 제한 정책에 따라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이 지속 확대돼, 업계는 2025년 중국의 생분해 플라스틱 수요를 500만톤 이상까지 예상하고 있음
- 국내 기업들은 생분해 제품의 개발을 완료했거나, 판로 개척을 검토하고 있으며, LG화학은 식물 유래 원재료를 사용하는 생분해 소재와 석유 기반의 생분해 소재에 모두 투자하고 있고 SK케미칼은 개발한 고유연 PLA의 사업 모델을 검토하고 있음

(디지털타임즈, 2023.03.20) 박한나 기자

3. EU, 초기 자금 8억유로 ‘수소 은행’ 공개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수소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 생산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소 1킬로당 일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수소은행’을 운영한다고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바 있음
- EU 환경위원회 프랜스 팀머만은 16일 “수소는 EU가 글로벌 경쟁에서 크게 앞선 산업”이라며 “설치된 전해조 용량의 50% 이상, 전해조 제조용량의 50% 이상이 EU에 있다”고 밝혔음
- 하지만 수소 프로젝트 중 최종 투자결정을 내린 것은 10%에 불과하며, EU 수소은행에서 재생가능 수소에 관한 그린 프리미엄을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음
- 2023년 가을부터 수소은행은 본격적인 입찰을 받으며, 원하는 기업은 생산 제안을 제출하고 비용이 가장 낮은 기업에 지원되고 이 기금은 EU의 탄소시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운영되는 ‘혁신기금’에서 나온다고 함

(Euractiv, 2023.03.17) Nikolaus Kurmayer 기자

1. 네슬레, 스타벅스, MS ‘클로즈드 루프’ 파트너의 순환경제 인프라 플랫폼

- 클로즈드루프 파트너는 MS, 네슬레, 펩시코, SK, 스타벅스, 유니레버 등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새로운 재활용 및 재사용 인프라 플랫폼인 ‘서큘러 서비스(Circular Services)’에 투자자로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 클로즈드 루프는 2022년 11월 대체자산 투자자인 브룩필드 자산운용사로부터 7억달러 자금을 지원받아 플랫폼을 론칭했음
- 서큘러 서비스는 북미에서 가장 큰 비공개 재활용 회사로, 각종 재활용 및 재사용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서큘러 서비스는 2025년까지 포장재를 100%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버진 플라스틱 사용을 1/3로 줄이겠다고 일회용 포장에서 벗어나 2030년까지 매장과 제조 시설에서 매립지로 보내지는 폐기물을 50%로 줄이기로 했음

[\(ESGToday, 2023.03.17\) Mark Segal 기자](#)

2. 올버즈, 사상 최초로 탄소발자국 제로 신발 공개

- 지속가능한 신발의 대명사로 불리는 올버즈가 탄소 상쇄에 의존하지 않고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 신발 M0.ONSHOT’을 발표했다
- 이 신발은 탄소 배출량인 업계 평균인 톤당 14킬로에 비해 제로라고 주장함
- 이 제품은 2018년 탄소 네거티브 소재인 ‘스위트폼(SweetFoam)’을 개발했으며, 2021년에는 아디다스와 저탄소신발 Adizero & Allbirds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음
- 이 소재는 바이오 함량이 80%인 새로운 초경량 폼으로, 네덜란드의 ‘레이크 하위아 스테이션(Lake Hawea Station)’에서 공급됐음 2023년 6월에 이 신발을 공개하며, 2024년 봄에 출시한다고 함

[\(ESGToday, 2023.03.22\) Mark Segal 기자](#)

3. 그린워싱 가장 심각한 분야는 식품업계?

- 네덜란드 친환경단체인 체인지마켓스재단(Changing Markets Foundation)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식품업계에 그린워싱이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조사해 보니 식품 라벨과 광고를 통해 내세우는 친환경 제품 주장 중 다수가 과장됐거나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는 것임
- 체인지마켓스는 그 중 과장 광고가 가장 심한 곳은 식품 관련 탄소배출에서 큰 비중의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와 낙농기업들이라고 밝혔음
- 앞으로 EU 회원국에서 친환경 제품임을 광고하는 기업들에게 그러한 광고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그린워싱에 대한 감시가 더 강해질 전망이다

[\(ESG경제, 2023.03.21\) 이진원 기자](#)

1. 국내 조선업계 뭉쳤다...‘탄소발자국 원팀’ 공동 구축 나서

- 국내 조선사 및 선급이 공동으로 조선업계 최초로 ‘탄소발자국 원팀’을 만들었음
- HD현대는 그룹 내 조선사뿐 아니라 동종업계인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국내외 선급 단체인 미국 선급협회(ABS), 한국선급(KR)과 함께, 탄소발자국을 추적해 이를 표준화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음
- 이들은 조선업계 온실가스 배출량 ‘스코프 3’ 산정 표준화를 위한 공동개발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하여 각 사의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 산정 방법을 상호 공유 및 비교, 분석하고, 선급의 자문을 거쳐 산출 방법을 표준화해 올해 말까지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음
- 각 참여 기관들은 향후 도출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받을 예정이며, 글로벌 조선사 및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관들로 참여 범위를 확대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할 계획임

(서울신문, 2023.03.17) 이기철 기자
(헤럴드경제, 2023.03.17) 김은희 기자

2. SK오션플랜트-코리오제너레이션, 글로벌 해상풍력 ‘맞손’

- SK에코플랜트의 해상풍력 전문 자회사 SK오션플랜트와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의 글로벌 해상풍력 전문 개발회사인 코리오제너레이션(이하 코리오)이 국내외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상호 협력·지원할 것을 약속했음
- 양사는 영국, 호주, 대만, 부산 등 국내외 6개 지역, 총 6.8GW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했음

(뉴스스, 2023.03.17) 신정철 기자

3. 네이버, 친환경 데이터센터로 온실가스 감축

- 네이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주목받고 있음
- 네이버의 데이터센터 ‘각’은 친환경탄소 저감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 친환경 탄소저감 기술은 현재 세종시에 건축 중인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제2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도 적용될 예정임
- 각 세종의 용량이 각 춘천보다 6배 더 큰 점을 고려하면 에너지 절감 효과, 탄소배출 감소 효과도 아시아 최대가 될 전망이다

(조선비즈, 2023.03.17) 박성우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03.17(금) ~ 2023.03.23(목)

제공일시 2023 03 3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격동하는 EU 내 자동차 규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사이 가교로 합성연료에 주목

- EU의 유로7법으로 인해 자동차 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음. 유로(Euro)7의 배출 계획이 현재 형태로 시행되면 체코의 스코다(Skoda) 자동차는 3000명을 해고해야 하며, 일부 모델은 단종해야 할 것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음. 스코다는 독일 폭스바겐 산하의 자동차 브랜드 9개 중 하나로, 역사가 100년이 넘는 회사임
- EU 국가들과 국회의원들이 올해 협상을 시작할 유로7 법은 질소 산화물을 포함하여 건강에 해로운 오염 물질을 내뿜는 자동차의 배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유로 7 법률에는 타이어로 인한 오염 관련 새로운 기준을 포함, 유해한 질소 산화물과 미립자의 차량 배출 등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대표적인 유로7 규정으로는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현행 80mg/km → 60mg/km ▲브레이크 입자 배출 기준: 현행 규제없음 → 7mg/km(2035년부터 3mg/km 로 강화) ▲타이어 미세플라스틱 배출 기준: 현행 규제없음 → 규제있음(수치 미정) ▲측정 대상 오염물질 입자 기준: 현행 23nm(나노미터) 까지 측정 → 10nm까지 측정 ▲배출물질 요건 준수 기간 주행거리: 현행 10만km 또는 5년 → 주행거리 20만km 또는 10년 등임
- EU는 1992년 '유로1' 이후 점진적으로 제한을 강화해왔음. 유로7은 2025년 7월 1일부터 자동차와 승합차에 적용되고 2년 후 버스와 트럭에 적용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재 유로6를 기준으로 하는 최저 값에서 트럭과 승용차 및 승합차에 대해 현재보다 더 엄격한 배출기준을 내놓았음
- 하지만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는 유로7이 시행될 경우 실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싼 개발 비용이 부과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예를 들어, 독일 다임러 트럭(Daimler Trucks) 마틴 다움(Martin Daum) 회장은 "업계에 수십억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 또한, 모임에 참석한 국가들은 2035년 이후에 새로운 내연기관차 판매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CO2 배출 자동차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EU의 2035년 시한에 대해 별도로 논의했음. 유럽의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EU의 법안은 독일의 막판 반대 끝에 이번 달 보류됐음
- 이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하 EC)는 내연기관 차량의 폐지를 둘러싼 독일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합성연료(e-fuel)만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2035년 이후에도 허용하는 계획의 초안을 작성했음
- '합성연료'(e-Fuel)는 물을 전기분해해 얻은 그린수소(H2)와 이산화탄소(CO2)로 제조한 액체 연료로, 탄소 발생량을 줄이지는 못해도 더 늘리지는 않는다는 장점이 있음. 연소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지만, 대기 중에 포함된 탄소를 포집해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탄소 순배출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탄소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음
- 합성연료는 내연기관 연료로 쓰일 수 있고, 일반적인 온도와 압력에서 쉽게 보관과 수송이 가능해 전기차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교 역할이 기대됨. 이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에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합성연료 연구가 활발함
- 로이터가 입수한 계획의 초안에 의하면, 탄소중립 연료로만 작동할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해 EU에서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 범주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음. 또한, 허용되는 차량은 합성연료가 아닌 다른 연료를 사용할 경우 주행이 안 되도록 하는 기술을 사용해야 함

(임팩트온, 2023.03.21) 홍명표 기자

(임팩트온, 2023.03.23) 홍명표 기자

- 이 제안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내연기관차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기로 한 EU의 데드라인인 2035년 이후에도 자동차 제조업체가 내연기관 차량을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내연기관 차량의 전면 폐지에서 한 발짝 물러난 셈임
- 수개월 간의 협상 끝에 EU 국가들과 유럽 의회는 지난해 2035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에 합의했으나, 독일 교통부는 이번 달 이 법률이 발효될 수 있는 최종 투표가 있기 며칠 전 마지막 순간에 이를 제기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을 놀라게 했음
- 독일뿐 아니라 이탈리아, 프랑스 정부도 공동 전선을 구축했음. 이들 회원국은 “EU가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급격한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반발함. 독일 정부는 기존 내연기관 엔진에 합성연료를 사용하면 배출을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음
- 독일 교통부의 핵심 요구 사항은 EU가 2035년 이후에도 합성연료로 작동하는 신차 판매를 허용하는 것임. 독일 교통부 장관 볼커 비싱(Volker Wissing)은 "유럽위원회의 제안을 완전히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일부 개선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 EU 관계자는 20일 로이터에 합성연료 자동차 등록에 대한 제안은 연소 엔진 단계적 폐지 법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된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음. 또 EC 대변인은 초안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지만 EU 기후정책 책임자인 프란스 팀머만스(Frans Timmermans)이 지난 주 "어떤 솔루션이든 작년에 합의된 2035년 단계적 폐지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한 점을 언급했음